"전주한옥마을서 릴레이 버스킹 즐겨요"

사단법인 더문화 'NOW청년PROJECT Ⅱ' 23일 태조로쉼터서 공연

'NOW청년PROJECT'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주에서 열린다. 2022 'NOW 청년 PROJECT Ⅱ'는 사단법인 더문화가 주최,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3일,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쉼터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릴레이 버스킹 공연을 한다.

'NOW청년PROJECT Ⅱ'는 다양한 지역과 장르로 활동 중인 청년 예술단체들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본인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무대와 공연문화 컨텐츠를 마음껏 내보일 수 있도록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과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에게는 관광과 더불어 공연도 즐김으로써 볼거리가 넘치는 한옥마을을 제공하여 공연자와 관람객 모두 활기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올해인 2022년에 2회를 맞이하여 더 새롭고 다채로워진 공연과 출연팀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출연 팀들은 다음과 같다.

KBS 국악 한마당에 출연한 바 있는 '배유경', 2022행복나눔 산사음악회에 출연한 바 있는 '베바', 2021 NOW청년PROFECT에 초청되어 단독 공연을 한 '조이풀 아카펠라', 한옥 정원 콘서트 출연 및 인문밴드 레이로도 활동 중인 '이상욱 밴드', 2021청춘마이크 외 다수 공연에 참여한 바 있는 '송은채', 2021여수 낭만 버스킹 공연과 인디실롱 벚꽃 흩날리는 어느 봄날 jazz concert 등에

2022 'NOW 청년 PROJECT Ⅱ

출연한 '오프스트릿', 문화가 있는 날 전주 팔복 예술공장 공연 및 청춘 마이크 플러스 Ep. 96 친구야 그 때 그 시절의 우리, 기억나니?에 출연한 'EPL+', 그리고 2022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출연하고 전라북도 음악창작소 지원사업인 레드콘 음악창작소에 선정된 '악바리'팀이 '2022 NOW청년 PROJECT Ⅱ'에 출연한다.

출연팀들은 오는 23일,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관광안내소 앞 '태조로 쉼터'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릴레이 버스킹 공연을 한다. 출연팀들은 지역민들과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 관광과 더불어 잠깐의 휴식을 위한 쉼터에서도 눈과 귀가 즐겁고 편안한 릴레이 버스킹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하여금 관광 외에도 다채롭고 색다른 즐거움과 심신이 편안한 휴식의 공간도 제공함으로써 '볼거리가 넘치는 전주 한옥마을'로 전주 한옥마을 관광사업에 더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2020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도내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창조,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더문화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인 'NOW청년PROJECT Ⅱ'를 통해 청년예술단체들에게는 보다 많은 무대 기회 및 본인들만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는 관광과 더불어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와 다채롭고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의 공연들로 오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더문화의 이윤정 이사장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원한 가을의 청취와 함께 즐거운 관광과 더불어,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2022 NOW청년PROJECT Ⅱ'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빼앗겼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예술단체와 지역민 및 관광객 모두가 풍부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행복하고 즐거운 볼거리가 넘치는 전주의 가을을 찾는 모든 이가 만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한복, 꽃으로 피다' 특별 전시

남원시, 11월 13일까지 화인당서 권혜진 한복디자이너 작품

남원시는 2022년 남원시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 꽃으로 피다'라는 주제로 한복체험관 화인당에서 오는 11월 13일까지 권혜진 한복디자이너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연아 선수와 권혜진 한복디자이너가 협업해 모란과 연꽃을 모티브로 한 패션 한복이 전시되어 관심이 주목된다.

또한 '백화포(白花泡)'라고 불렸던 전통 혼례복인 활옷 2점과 다양한 꽃무늬 옷감의 패션 한복, 그리고 궁중혼례 때 사용한 궁중 화원이 그려서 만든 궁중 인문 보자기까지 꽃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권혜진 한복디자이너는 전통을 모티브로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한복을 재창조하는 작가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한복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디자이너로 선정되어 김연아와 한복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시하며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와 권혜진 한복디자이너가 협업해 모란과 연꽃을 모티브로 한 패션 한복이 전시된다.

남원시 양인환 관광과장은 "한복문화 활성을 위해 특별 전시를 준비했다"며, "국민들에게 꽃으로 피어난 한복의 향기가 스며든 남원으로 가을여행 많이 오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익산 가람시조문학상 '진순분 시인' 선정

신인상 김태경 시인 수상

올해 익산 가람시조문학상에 진순분 시인의 '이인칭으로 부르면'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42회 가람시조문학상 수상 대상자로 진순분 시조시인의 '이인칭으로 부르면'을, 제14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수상 대상자로 김태경 시조시인의 '별빛의 말'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본상 대상자인 진순분 시인의 '이인칭으로 부르면'에 대해 2인칭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마음을 여러 장단의 음악으로 담아낸 예술적 의장이 돋보이는 명편이라고 평가했다.

1990년 경인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진순분 시인은 한국시조시인협회상 본상, 윤동주문학상, 올해의시조집상, 수원예술대상, 시조시학상 본상, 경기도문학상 본상, 나혜석문학상, 홍재문학상, 한국시학상, 수원문학 작품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조집 '한개꽃 은유', '시간의 세포', '바람의 뼈를 읽다', '블루 마운틴', '돌아보면 다 꽃입니다', '익명의 첫 숨'을 출간했다.

신인상 대상자인 김태경 시인의 '별빛의 말'은 독백과 고백으로 이어지는 슬픔의 정서를 단정한 형식에 얹어 신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태경 시인은 2014년 열린시학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이후 201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제8회 김상옥백자예술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 '액체 괴물의 탄생'을, 평론집으로 '숲과 기억'을 출간했다.

진순분 시인

김태경 시인

10년 미만 경력의 시조시인에게 주어지는 가람시조문학신인상 부문은 지난 4일까지 공개 응모로 모집하였으며 총 34인, 170개 작품이 응모됐다. 창작 경력 20년 이상 시조시인에게 주어지는 가람시조문학상 본상은 추천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15인, 21개 작품이 추천되었다. 심사위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과 작품을 심사하여 최종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5일 여산 가람문학관에서 제14회 가람시조문학제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는 상금 2천만원과 상패,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수상자는 상금 1천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진순분 시인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기적처럼 저에게 다가왔다"며 "지금껏 초심의 자세로 시조를 써 왔듯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다잡아 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태경 시인은 "시조 문학을 일으켜 세우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 가람 이병기 선생님을 기리는 가치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알바니아 교육체육부 차관, 태권도원 방문

지난 18일, 알바니아 교육체육부 차관과 알바니아 올림픽위원장 일행이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을 방문, 알바니아 내 태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알바니아 Endrit Hoxha 차관은 자국내 교육체육부 차관이자 태권도협회장으로 Fidel Yilli 알바니아올림픽위원장 등과 함께 공식 방문한 것으로 이전 태권도원 방문 후 재방문인 셈이다.

알바니아는 발칸반도 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2005년 한인선교사에 의해 태권도가 소개되며 현재 각종 태권도대회 등 현지 인기가 상당한 국가로 Endrit Hoxha 차관은 자국 내 공립학교에서 태권도가 교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정세 변화로 해외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바니아 뿐 아니라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해외 국가들의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K컬쳐에 관심이 높은 요즘, 태권도가 그 중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해외 41개국 42개소에서 공립학교 수업을 포함한 태권도 사업을 지원하고 11명의 태권도 봉사단을 파견해 해외 태권도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태권도원 내 WT 융합 컨퍼런스, 국가원 ODA 연수 등을 개최하여 세계 태권도 성지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 신진예술가 타악 공연 선보인다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장영준 씨의 공연을 20일 저녁 7시 30분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클래식 타악기만으로 이뤄진 타악기 앙상블 공연이다.

공연을 기획하고 연주자로도 참여하는 장영준 씨는 "타악기가 무대 뒤에서 악센트나 음악적 긴장만을 돕는 '들러리' 역할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타악기가 전면에 나서는 연주를 기획했다"며, "타악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음색으로 무궁무진한 음악적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주를 연고로 활동하는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주신진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무정산 시상금 형태로 최대 700만 원까지 창작지원금이 지급되며, 전문가 리뷰와 전주문화재단이 운영중인 연습공간 및 공연장 등의 공간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올해 선정자 가운데 연극배우 이중오 씨, 영화감독 이상휘 씨, 피아니스트 김찬미 씨, 시각작가 이루리 씨의 작품 발표가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장영준 씨의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예진흥팀(070-7711-3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